

##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1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고창군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기에 대해 지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증 대상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47필지다.

군은 검증에 앞서 대상 토지 특성에 대해 현지 조사하고, 지가산정을 완료했다.

검증은 개별공시지기의 균형 유지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기는 오는 9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정 등의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고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주산면 자율방범대 코로나 방지 방역소독 실시

부안군 주산면 자율방범대(대장 이원병)가 18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시가지·경로당 36개소 등 120여곳을 일괄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소독은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감염 추가 확산을 막고 면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원병 자율방범대 대장은 "코로나 19의 재 확산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대가 조속히 진정돼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춘수 주산면장은 "생업에 바쁜 와중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자율방범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소 채혈 검사 앱 상용화 '눈앞'

정읍시, 브루셀라·결핵병 앱 하나로 쉽고 빠르게… 최근 시연회 마쳐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소의 채혈 검사신청을 위한 스마트폰 앱 '정읍 소(가칭)'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소의 농가 간 거래나 도축장 출하를 위해서는 반드시 채혈을 통해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진단을 위한 채혈 검사를 하려면 유선전화를 통한 신청 방법이 유일해 민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특히 채혈자 또는 채혈 두수 변경 등의 요청사항으로 민원 처리 시간 지연과 행정업무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수시스템을 구축, 채혈 일자와 채혈자(공수)를 농가 편의에 맞게 직접 지정하고 채혈 신청 승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

센터에서 소 브루셀라·소 결핵 채혈 검사신청 앱 '정읍 소'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시 축산과 관계자와 축산농가를 포함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연회에서는 축산농가의 연령대가 높은 만큼 앱에 대한 기본정보와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앱 회원가입 방법과 검사신청 진행 단계(채혈 신청→신청 승인→채혈자 배정), 앱 관련 사항 기능 등을 안내하고 채혈 검사신청을 현장에서 시연해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옛 상동회관 앞 6개거리의 신호등 교통체계를 회전교차로 체계로 변경하고 18일부터 전면 개통했다.

###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정읍시, 옛 상동회관 앞 회전교차로 전면 개통

들의 도로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차로 통행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차량의 배기ガ스 감소와 유자판 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통된 ㄷ·ㄹ하다리(연장 73m, 폭 35m)와 서부산업도로의 미지마 연결 구간(상동주유소~상동회관)에서 작은말고개를 잇는 중심 교차로로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차로 내 거리출처처럼 얕힌 각종 전선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유진석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치매 안전망 강화

고창군치매안심센터가 올해 유관기관(고창군장애인복지관,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연계해 '찾아가는 치매파트너 다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어르신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88명에게 상·하반기 치매예방교육과 인지강화교구 사용법 등 5차례의 교육을 진행하고, 어르신 가정방문에 활용하도록 했다.

돌봄어르신 1420명에겐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지강화교구(인지그림책, 퍼즐, 악력기 등)를 2차례에 걸쳐 제공하면서 치매안심 행복노년을 살아가도록 촘촘한 건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1200여 명 혜택 1인당 10만원씩 24일 일괄 지급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이 되는 지원금으로 정부의 2차 추가 경제에 신안에 반영되어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이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정읍지역에서는 1

만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피약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 씩 1회 한

시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차상위계층·이연금·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 급여·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단, 계좌오류가 생기거나 이달 신규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블록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석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내장상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행정 '호옹'

정읍시 내장상동주민센터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장상동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달 초 주민센터 내 종합상담창구를 설치했다.

또 주민센터의 보건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